

쟁충(爭寵)형 가정소설 〈謝氏南征記〉의 정념 연구

－ 교씨의 질투를 중심으로

강지연*

【 차 례 】

- I. 쟁충(爭寵)에 대한 정념의 기호학적 접근
- II. 질투 정념의 형성 요소
- III. 질투의 양태 장치와 통사론적 구성
 - 1. 거시 시퀀스
 - 2. 미시 시퀀스
- IV. 맺음말

국문초록

이 논문은 17세기 후반 김만중이 지은 <사씨남정기>를 대상으로, 인물의 행위를 추동하는 정념에 주목한다. 그리고 서사의 중심축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교씨를 중심으로 정념이 실현되는 조건과 형성 과정을 분석했다. 이를 위해 정념의 기호학적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정념 도식에 따라 살펴보았다. 인물의 행위는 인식론적 층위에 위치한 정념에 기초하며, 이러한 정념의 변형을 통해서 담화를 구축한다. 따라서 인물의 정념에 주목하는 것은 행위와 모종의 관계를 맺으며 서사 갈등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에 일조할 것이다.

<사씨남정기>에 나타난 교씨의 질투는 결혼이라는 제도로 얻게 되는 일종의 보상 심리에 가까운 것이었다. 이에 따라 교씨가 갖은 질투의 시초는 잘 살아 보려는 삶에 대한 욕망에서 비롯한 것이었지만, 정념에 사로잡힌 주체는 부정적인 불안과 의심을 낳고, 이어서 폭력과 분노로 표출하여 결국 파국을 맞게 되었다. 이에 교씨는 본처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경쟁심과 삶에 대한 애착심 사이에서 질투하는 주체가 된다. 표

* 김포대학교

면적으로는 인과응보의 원칙을 철저히 따르는 고소설의 평범한 주제 의식을 보여주지만, 정념에 기초하여 교씨의 행실을 되짚어보면 그녀는 자신과 자식의 안위(安慰)를 지키기 위한 삶을 모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열쇠어 : 정념의 변형, 질투, 정념기호학, 사씨남정기, 쟁총.

I. 쟁총(爭寵)에 대한 정념의 기호학적 접근

본 논문은 쟁총형 가정소설의 효시(嚆矢)로 알려진 『사씨남정기(謝氏南征記)』를 대상으로 하여,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질서를 타락시키는 인물 행위의 기초를 인물의 정념에서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념은 이야기의 플롯(plot)을 구성하는 핵심 기제(機制)이자, 서사 전개와 갈등의 요소, 그리고 인물의 행동에 바탕이 되는 근원적인 힘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종래의 고소설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는 스토리와 구조의 문제, 또는 인물 분석에 따른 행위 위주의 분석에서 나아가 그러한 행위를 추동하는 인물의 정념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로써 본고는 기존 논의에서 포착하지 못하는 텍스트의 결을 새롭게 제시하고, 정형화된 읽기 방식을 탈피하려는 시도가 될 것이다.

<사씨남정기>는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소재로 가족 윤리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가정 소설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양상은 주로 부부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그리고 처와 첩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다룬다. 이때 갈등의 요인이 되는 것은 특정 인물의 부덕(不德)함에서 비롯된다.¹⁾ 사건의 진행은 그 부덕함이 밝혀지는 과정 중에 있으며, 이에 응하는 상벌이 주어지면서 결말은 독자에게 교훈을 전달한다. 고소설의 이러한 서사 전개의 방식은 독자에게 복잡한 해석을

1) 고소설에서 처와 첩의 갈등을 다루는 이야기로는 대표적으로 <사씨남정기>를 비롯하여 <옥난방>, <정진사전>, <창선감의록>을 꼽을 수 있다.

요구하지 않으며, 명백한 교훈을 전달하는 전형적인 방식이라고 여겨왔다. 따라서 그간의 논의도 이러한 서사 방식과 인물 행위에 주목하였다.

한편, 쟁충형 가정소설에서는 처-처/첩의 관계에서 갈등 문제를 자주 다루며, 가정 파탄에 중심에는 언제나 투기하는 여성이 등장한다. 만일 악인의 선천적인 기질이 갈등과 핵심 사건에 기여한다면, 인간의 이러한 성정(性情)은 소설에서 어떻게 발현되는가? 고소설에서 악인은 처음부터 그런 본성을 가진 인물로 설정되어 서술자의 부정적인 평가가 주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이러한 전제에서 악인에 대한 논의는 분명하게 투영된 작가 의식에 가려 한계에 부딪치기 마련이다. 이때 사건의 핵심 갈등이 행위 이전의 문제, 곧 인물의 타고난 자질 및 성품에서 비롯되는 문제라면, 그럴수록 인물의 감각적 상태를 살펴보는 것은 더욱이 주목을 요한다. 그러한 점에서 고소설의 인물론과 더불어 그간에 주목받지 못했던 정념에 대한 연구는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데카르트로부터 시작된 정념에 대한 서양 철학자들의 연구는 정념을 정신, 감정, 느낌과 유사한 의미로 논의하였지만, 여전히 그 정의와 개념이 모호하다. 한편, 정념 기호학에서 말하는 정념이란 ‘행위로 표출되기 이전의 감각’ 또는 ‘지각에 선행하는 인간의 의식 속에 해당하는 것’으로 담화에 산재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텍스트에서 아직 분절되지 않은 이러한 감각을 어떻게 포착하여, 정념의 행로를 기술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제기된다. 1990년 초반 파리 학파가 제시한 ‘정념의 기호학’²⁾(*Sémiotique des passions*)은 정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시각을 제시하여, 모호하고 연속적인 인식론적인 층위를 구조주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론적 도구를 제공해 주었다.

정념이 ‘감각의 기질 덩어리’이자 텍스트에서 무질서하게 산재되어 있

2) Algirdas Julien Greimas & Jacques Fontanille, *The Semiotics of Passions From States of Affairs to States of Feeling*, (trans.) Paul Perron & Frank Collin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3.

다 하더라도, 이는 하나의 신체적 반응으로 담화화되어 텍스트에 표출된다. 정념에 대한 기호학의 관심은 감성을 몸으로 지각, 인지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감성차원에서 감각적 몸의 역할을 환기시켰다. 즉 정념 기호학은 서사주체와 인지주체 사이에 존재하는 몸을 매개로 하여 정념주체가 생성하는 의미작용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³⁾ 이에, 정념의 기호학에서는 서사 기호학에서 의미 생성 구조를 분석하듯, 주체의 행위와 의미가 발현하기 전부터 정념이 발현된 이후의 문제까지 정념 구조의 기초를 정립하기에 이르렀다.

그레마스(Greimas)는 의미 생성 행로인, 심층구조, 표층구조, 담화구조라는 세 층위에서, 심층 이전에 ‘선조건 층위’를 설정하였는데, 정념은 바로 이 선조건 층위에 자리한다. 이 층위는 의미 생성의 첫 단계로 무정형의 연속적 상태이며, 인간의 사고나 행동이 있기 전에 ‘감각과 지각’이 이루어지는 층위이다.⁴⁾ 이러한 정념은 담화에서 특별한 의미 효과를 전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것은 확인이 어렵고 규정하기 어려운 향기로 발산된다.⁵⁾ 인물의 감정 및 정서에 주목한 인물론에서는 인물에게 주어진 심리가 본질적으로 내재 되어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텍스트 너머의 내용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심리적 요인을 기술한다.⁶⁾ 반면, 정념 기호학에서 주목하는 정념은 주체의 감정이나 자질의 상태를 기술하면 서도 텍스트에 천착하여 정념의 구조를 말할 수 있다. 정념의 기호학에

3) 백승국, 이해지, 김강석, 「감성문화콘텐츠의 정념 기호학적 고찰」, 『기호학연구』 제35집, 한국기호학회, 2013, 2쪽

4) 홍정표, 『정념 기호학: 문학 텍스트에 나타난 희로애락』, HUEBOOKS, 2014, 100쪽.

5) Greimas & Fontanille, op.cit., p.1.

6) 고소설에서 인물의 감정에 주목한 논의로는 주로 인물의 표정이나 행동에 나타난 묘사에 주목하여 감정에 대해 분석하였다. 정혜경은 「조선 후기 장편 소설의 감정의 미학」(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에서 장편 소설에 나타난 다양한 감정과 그 기능을 예각화하여 논의하였으며, 최기숙은 「고소설의 감성 문법과 감정 기호」(한국고소설학회, 2015)에서 감성 문법 및 감성 수사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본고에서 주목하는 정념 구조와는 다른 차원으로 감정의 수사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서 분석의 틀로 제시한 정념 도식은 보편적인 정념의 구조를 논리적으로 증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념의 기호화는 철저히 텍스트 위주의 읽기를 하면서도, 동시에 담화에서 직접 드러내지 않은 이면의 내용까지 추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심리학적인 접근 방식과는 차별을 둔다.

II. 질투 정념의 형성 요소

<사씨남정기>에서 교씨(S_1)는 유한림의 가족과 불화를 겪으며 화근을 불러들이는 정념 주체이자, 정실 부인 사씨(S_2)와 남편 유한림(O) 사이에서 질투하는 주체이다. 질투는 항상 주체, 대상, 연적의 행위소 사이에서 일어나며, 그 중 대상만 있거나 연적만 있어서는 성립되지 않는다. 교씨는 연적 관계에 있는 사씨와 직접적인 충돌을 하지 않고도 그녀 스스로 정념에 휩싸여 감정의 분열과 분노를 자초한다. 하지만 인물의 감각적인 상태는 인물 자체에 주어진 기질적인 성향은 물론, 인물이 처한 상황 맥락에서 다른 인물과의 관계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정념은 복합적인 변수들의 작용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사씨남정기>에서 서사를 진행시키는 축은 교씨를 중심으로 작용한다. 이를 서사프로그램으로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F [S_1 \rightarrow (S_1 \cap O \cup S_2)]$$

(S_1 : 교채란, O : 유한림, S_2 : 사씨부인, \cap : 연접, \cup : 이접)

교채란은 대상인 유한림과의 연접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대상과 사씨와의 이접을 욕망한다. 교씨가 한림에게 대하는 모든 행위는 결국 사씨와의 이접을 야기하는 것이고, 나아가 교씨가 배타적인 성향의 욕망을 추구하도록 만든다.

교채란은 선비의 딸로 태어나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재상의 첩’이 되

기를 자청하였으며, 채란을 남편의 첩으로 청했던 사씨도 그녀를 흡족해 하며 맞아 들였다. 이후 교씨의 갖은 모함과 악행으로 사씨를 몰아내지만, 정작 자신이 낳은 아이마저 죽음으로 내몰고 남편마저 모함하여 교씨의 결혼 생활은 파탄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사건과 행위의 과정에서 교씨의 정념이 서사의 기본프로그램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미파 | 덕왕 성은 교(喬)요 명은 칠봉(彩鳳)이니 하간(河間)짜 사름이라 스족(士族)의 쏘노 부모 구물하고 동싱우에 즈라나 시방 년괴십륙세이온디 구 혼하느니 잇스되 스스로 말하기를 한미흔 선비의 안희 되느니 찰하리 직상의 첩이 되리라하니 이는 맛느기 어려운 귀희라 그 녀즈의 직식이 비홀디 업스오니 부잇고셔 희첩을 구하실진디 이녀즈에서 지날자 | 업슬가 하느니 다⁷⁾

“가난한 선비의 아내 되느니 차라리 재상의 첩이 되겠다”고 말한 교씨의 발화에서 교씨는 결혼을 신분상승의 수단이자 기회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선비의 아내 되는 것이 ‘가난’을 담보하는 것이라면 재상의 첩은 곧 ‘가난하지 않음’을 가정(假定)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씨에게 유한림의 존재는 사랑을 추구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교씨가 한림과의 연접을 원하는 것은 한림을 취함으로써 자기의 미천하고 가난한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 곧 신분 상승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과 통한다. 유한림은 ‘성의백 류기의 후예’이자 벼슬 받은 자로 그와의 결혼 생활은 부귀공명(富貴功名)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후 교씨는 유한림의 아내가 된 후 오래지 않아 임신을 한다. 가족 모두가 기뻐하였고, 또 교씨는 남편으로부터 극진한 대우를 받았음에도 그녀에게 임신은 오히려 불안과 근심의 단초가 된다.

7) 舊活字本, 『古小說全集』21, 民族文化研究會, 仁川大學, 1984, 18쪽.

교시 왁 상공이 날을 취ᄃᆞᆫ 즈식을 취ᄃᆞ미 아니오 즈식을 취ᄃᆞ미니 만
일 녀즈를 노ᄃᆞ면 안니 노ᄃᆞ 니만 갓지 못ᄃᆞ도다⁸⁾

교씨는 스스로 첩이 된 것이 한림의 후사를 잇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
을 인지하고 있다. 이는 한림과 자신이 일종의 계약관계에 있음을 말해
준다. 따라서 남아를 낳지 못한다면 계약의 실패는 물론, 첩으로서의 역
할을 하지 못하기에 자신의 처지가 불안하게 될 것임을 의심하는 것이
다. 그 후로 교씨는 정실 부인 사씨의 임신 사실로 인하여 의심의 단계
를 지나 불안의 강도가 점차 심화된다. 따라서 교씨는 재상의 첩이 되어
자신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충족되지 못할 것이라는 실망감에 좌절하기
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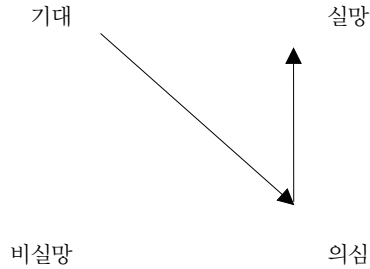
남ᄃᆞ 왁 부인의 잉ᄃᆞᄃᄃ시를 아ᄃᆞ시노니잇가 교시 청파의 텃ᄃᆞ실ᄃᆞ 왁 성
혼 십여 년의 초산은 희ᄃᆞᄃᄃ 일이니 제 만일 싱ᄃᆞᄃᄃ면 나ᄃᆞ 무용지인이 되
리로다 ᄃᄃ고 근심ᄃᆞᄃᄃ를 마지아니ᄃᆞ나

위의 예문에서 교씨는 사씨 부인의 임신 소식을 듣고 불안감이 고조된
다. 사씨가 임신하여 자식을 얻게 되면, 자기는 ‘무용지인(無用之人)’이
될 것이라는 상상의 가상체(simulacrum)를 만들어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상체는 정념 주체가 자신의 정념 안에 ‘상상의’무대를
삼입시키는 것을 말하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정하는 것이다. 이
후 가상체를 통해 상태 주체와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에 이를 정념 발
현의 전제라고 말한다.

가. 교씨가 재상의 첩이 되다.	기대감
나. 교씨가 여아(女兒)를 임신하다.	의심함
다. 사씨가 남아(男兒)를 임신하다.	실망함

8) 이후 인용문은 <한국방각본소설전집> 2편의 내용을 따른다.

그리하여 정념의 발현 이전에 교씨의 상태는 기대 → 의심 → 실망이라는 시퀀스의 연결로 나타나며, 이러한 과정이 질투의 통사 구조를 보여준다. 이를 도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씨는 아직 악행을 행하기 이전에 역량을 갖춘 잠재된 주체에서 이후 행위가 수행되는 실현된 주체가 된다. 아직은 가치 대상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에, 앞으로 교씨의 정념은 대상과의 연결을 위해서 행위로 실현된다.

Ⅲ. 질투의 양태 장치와 통사론적 구성

그레마스는 기호 서사 층위에서 네 가지 양태⁹⁾로 분절되기 전의 상태를 ‘변조’라고 지칭하며, 이러한 잠재적 상태가 선조건 층위에서의 감적 덩어리(masse phorique)로 나타난다. 네 가지 변조는 다시 기호-서사 층위에서 네 가지 양태가 된 후에 담화층위에서 네 가지 상으로 표출되는 것이다.¹⁰⁾ 이때, 선조건 층위에서 변조가 직접 담화화로 소환되거나, 기

9) 양태성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는 박은영, 「정념의 기호학 연구-보들레르의 『악의 꽃』에서 주체의 행로」, 『프랑스문화예술연구』, 5집, 2001,의 논문을 참조할 것.

10) 첫째, 개시변조 /원함/은 변화를 가져오는 사행의 출발점이자 되어감을 촉진시킨다. 둘째, 종결변조인 /알다/에서 무엇을 안다는 것은 되어감의 흐름을 멈추게 한다. 셋째, 지속변조는 /할 수 있다/의 원형으로 간주되며,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계속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점괄 변조는 /해야 한다/의 원형으로 사행의 시초에 위치할 때는 기

호 서사 층위에서 양태 전환 후 담화층위에 소환되기도 한다.¹¹⁾ 이러한 기호학의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담화층위에서 변환과 소환의 과정을 기술 할 수 있으며, 이로써 주체의 정념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적 접근이 가능하다.

질투는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다른 이가 충족하고 있을 때 이를 시기하는 것이며, 또한 나와 다른 이가 동시에 같은 대상을 추구할 때 생겨난다.¹²⁾ 이러한 질투는 정념 주체가 대상을 소유할지라도 다른 대상과 공유할 수 없는 배타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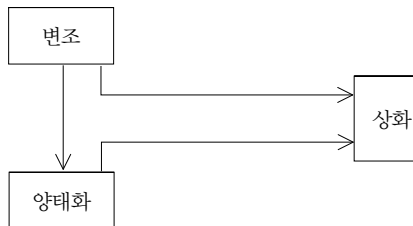
한편 텍스트에서 정념의 발현을 포착할 때, 전체를 아우르는 거시적인

동상, 사행의 끝에 위치할 때는 종료상으로 분절된다. 점괄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박인철, 『파리학과파의 기호학』, 민음사, 2003, 448~449쪽 참조.

다음의 표는 위의 설명을 정리한 것이다. 홍정표, 앞의 책, 107~108쪽.

선조건 층위	기호-서사 층위	담화 층위
개시 변조	/의지 혹은 원하다/	기동상
종결 변조	/지식 혹은 알다/	종결상
지속 변조	/능력 혹은 할 수 있다/	지속상
점괄 변조	/의무 혹은 해야 하다/	점괄상

11) 이를 도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Greimas & Fontanille, op.cit., pp.38~39.



12) 질투하는 주체는 대상을 단순히 소유하는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주체가 이를 공유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질투하는 주체는 상대적으로 열등한 처지에 있거나 권력을 갖지 못하는 입장에 서야 한다. 가령, 처-첩, 또는 처-처 간의 관계에서 갈등의 발단은 한 남편의 총애(寵愛)함을 덜 받거나, 그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대에게서 비롯된다. 따라서 질투라는 정념은 질투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주체가 스스로 열등감에 시달리다가,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대개 정념 주체의 악행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정념의 절차가 있는가 하면, 그 중 정념의 발현 부분만을 포착하여 세부적인 관찰이 가능한 미시적인 접근 방법이 있다. 전자에서 정념 주체가 질투의 선행하는 감정과 후행하는 감정을 모두 포괄하는 질투의 형상계 전체를 검토하는 반면 후자에서는 정념의 형성과 발현 이후 평가가 이루어지는 다섯 단계의 정념 도식을 따른다. 이 두 가지 층위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맺으며 정념의 통사적인 변형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한다.¹³⁾ 각 단계별 내용을 도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배타적 애착
경계심 어린 의심
질투의 발작
미시 시퀀스
재활성화된 사랑/증오

〈거시 시퀀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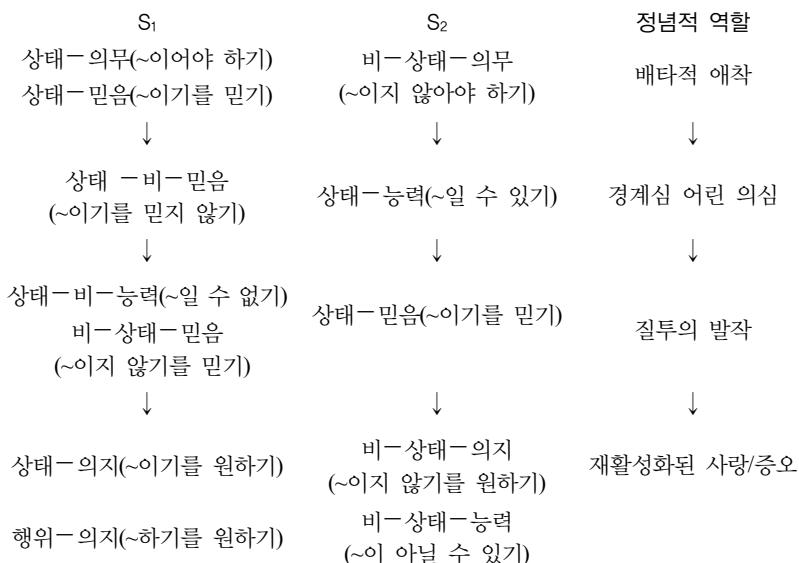
1. 거시 시퀀스

질투하는 주체(S_1)의 양태화는 적대 관계에 있는 주체(S_2)와의 배타적인 태도를 전제로 한다. 그리하여 정념을 이루는 각각의 양태들은 연속적인 배열을 이루며 정념적 역할과 대응한다. 이를 네 단계의 도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¹⁴⁾

먼저, 교씨의 상태-의무는 ‘유한림의 아내 이어야하기’이다. 사실 이 양태화가 내포하는 이면의 의미는 유한림의 아내가 되어 ‘부귀공명이 보장되어야 하기’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태-의무, 상태-믿음은 정념 주체에게 배타적인 태도로 작용하여 정념의 강도가 커질수록 그와 연적 관계

13) *op.cit.*, p.170.

14) *ibid.*, p.169.



에 있는 사씨는 ‘비-상태-의무’가 더욱 강하게 작용한다. 즉 교씨의 ‘~이어야 하기’라는 양태화가 동시에 사씨에게는 ‘~이지 않아야 하기’를 전제한다.

이에 따라 사씨 부인은 ‘유한림과 연접이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 교씨는 유한림에게 신뢰와 애정을 받고 있는 사씨 부인을 신뢰할 만한 여인이 아닌, 방탕하고 부덕한 여인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질투하는 주체는 비-행위-비-능력(~하지 않을 수 없기) 이라는 강요된 양태화를 지니게 된다. 다시 말해, 교씨의 질투는 사씨를 ‘모함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¹⁵⁾

두 번째 단계에서는 교씨의 믿음과 신뢰가 의심으로 나아가는 단계이

15) 데카르트의 『정념론』에서는 “좋은 것을 지향하는 욕망은 좋은 것에 반대되는 나쁜 것에서 멀어지려는 경향을 지닐 때 미움, 두려움, 슬픔을 수반한다고 말한다.” 또 “좋은 것에 대한 추구와 좋은 것에 반대되는 나쁜 것에 대한 도피를 하나의 욕망에 연결할 때, 이 둘이 만드는 하나의 정념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말하였다. 르네 데카르트, 『정념론』, 김선영 역, 문예출판사, 2004, 90쪽.

며, ‘상태-비-믿음’의 양태로 나타난다. 자신이 비록 재상의 첩이되긴 하였지만 처음의 믿음대로 자신의 생활이 안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음을 느끼는 불안의 정념이 표출된다. 이는 질투의 정념이 발현되기 직전의 감정적 반응으로, 질투는 대개 이러한 불안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연적인 사씨 부인은 ‘유한림과 연접이지 않아야 하기’가 ‘연접 일 수 있기로 양태화 된다. 이처럼 두 부인의 임신 사건은 교씨에게 ‘경제심 어린 의심’이 발동하는 계기가 된다.

세 번째 단계는 정념 주체의 의혹과 불신이 증거를 얻어 확신에 이르는 단계이다. 여기서 교씨는 유한림과의 연접으로 기대했던 바가 실현될 수 없음을 믿고 불신에 이르게 된다. 이후 질투하는 주체의 정념은 정념의 폭발을 경험하게 된다. 교씨는 아이를 낳고도 자신이 버려질까 두려운 마음에 유한림에게 거짓으로 사씨의 악행을 고해바친다. 이 단계에서 비로소 교씨의 잠재되어 있던 질투가 적극적인 행위로 발현한다. 또한 ‘~일 수 없기’와 ‘~이지 않기를 믿기’로 양태의 변형을 가져온다.

가) 교시 왈 앓가 심심히기로 노릿 부르니 부인이 듯고 불너 칙히되 네 요 괴로운 노릿로 집안을 논히고 한님을 혹게 하니 네 츠후의 쏘 부르면 너게 혀 쓴난 칼도 잇고 병어리 되느 약도 이스니 니후는 삼가고 조심하라 하시니 첩이 본디 빈한흔 계집으로 상공 은혜를 입스와 영화부귀이 갓트니 비록 죽으나 한이 업슬 것시로되 다만 상공 청덕이 첩으로 인하여 흠식 될가 헛늑이다

나) 교시를 위로 왈 너 너를 취히미 다 부인의 권흔 비요 일즉 부인이 너 디접히미 극진히거늘 어이 히로오미 잇스리요 아마도 노복들의 참언인가 시부니 부절업슨 녀며말고 안심하라 하니 교시 양양흔를 마지아니 하더라

가)는 사씨 부인이 자신에게 충고했던 말을 한림에게 거짓 증언하는 대목이다. 사씨가 한 말을 통해 자기의 죄 없음을 한림에게 말하면서, 자신의 가엾은 처지를 한탄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유한림은 사씨를 의심하기는커녕 도리어 사씨부인의 현숙함을 칭찬하고 교씨가 한 말은 노복들의 참언으로 치부(置簿)하고 있다. 이에 교씨의 마음에서 사씨에 대한 미움과 노여움은 최고조에 달하고, 자신은 사씨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음’을 완전히 믿게 된다. 이렇게 질투의 발작이 실패의 확신으로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정념의 강도와 범위는 더욱 증폭되어 더 큰 파문을 일으키는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

지금까지 정념의 발작이전의 과정에서 주체의 양태는 ‘상태-의무’와 ‘상태-믿음’이 주조(主潮)를 이루었다. 마지막 단계인 ‘재활성화된 사랑/증오’에서는 정념주체의 ‘상태-의지(~이기를 원하기)’와 ‘행위-의지(~하기를 원하기)’로 양태화 된다. 질투 발작의 실패는 더 강한 증오와 복수심을 일으키고, 경쟁자에게서 대상을 빼앗기 위한 더 강한 정념으로 나타난다.

먼저, 정념주체의 상태-의지는 ‘정실부인이길 원하기’로 양태화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교씨는 갖은 수법을 동원하여 사씨부인을 모함하기 시작한다. 그 첫 번째가 동청과 계략을 세워 유한림에게 사씨의 거짓 정부(情夫)를 만나게 하는 것이고, 그 이후 설매를 시켜 교씨의 아들 장주를 죽인 후, 이를 사씨의 소행으로 만든 일이다. 이로 인해 결국 한림은 교씨를 위로하고 사씨를 쫓아내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교씨의 행위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견잡을 수 없는 정념에 사로잡혀 사씨를 괴롭히는 더욱 적극적인 행위-의지로 나아간다. 정념 주체의 행위는 좋은 것을 보존하기 위함과 동시에 나쁜 것의 부재를 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씨는 욕망의 충족만이 아니라, 사씨부인을 쫓아내고, 그와 관련한 모든 것을 제거하기를 원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욕망의 과잉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적극적으로 욕망의 추구를 자극한

다. 다음의 예문에서는 좋은 것을 얻기 위한 교씨의 욕망이 이를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함으로써 스스로의 불안을 잠식시키려는 의지로 표출하는 것을 보여준다.

츄설 닝진이 동청을 붓치니 동청이 드시 스팀으로 햏여곰 듯보니 신성으로 갓다 햏거늘 가장 의심햏여 교네 한님다려 왈 샤시 타인을 좇츠가더라 햏니 집짓 음난햏 녀지라 닝이 그 속의셔 늑스니 필연 달마슬 것시오 샤시 스정¹³²이 있슨 지 오리니 닝으를 머무려 두미 조상의 욕될가 햏늑이다

위의 인용문은 교씨가 한림에게 사씨의 아들 인아를 모해(謀害)하려는 대목이다. 사씨가 이미 집에서 쫓겨났음에도 그의 아들 인아마저 해치려는 것은 사씨에 대한 증오심이 인아에게 전가하여 경쟁자 교씨에 대한 질투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증오심은 행위가 거듭될수록 상태 주체인 사씨를 더 극한 곤경에 처하게 만들고, 급기야 그녀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기에 이르러 ‘사씨의 죽음을 원하기’까지 한다.

하지만 사씨를 죽이려는 음모가 실패로 끝나자 교씨의 정념은 한림을 포함하고, 그를 죽이고자 하는 ‘행위-의지’의 양태화로 폭발한다. 이는 곧 그녀가 추구하는 대상이 유한림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전술했다시피, 교씨에게 남편은 그저 자신의 신분상승을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유한림은 많은 재물과 안정적인 신분으로 형상화 될 뿐이다. 교씨는 한림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하였기 때문에 유한림은 욕망하는 대상으로서 가치를 상실하였고, 이제는 그를 모해하면서까지 얻은 것을 지키고자 한다. 이는 교씨가 질투하는 대상이 남편에 대한 사랑이 아님을 방증(傍證)한다. 또한 자신이 저지른 그동안의 일이 탈로 날지 모르는 두려운 마음에 이제 정념 주체는 대상으로서 추구했던 한림과 연결이기를 거부한다. 따라서 교씨가 동청과 정을 나누고 다른 뜻을 품은 것은, 한림에 대한 교씨의 애정이 변절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대한 정념의 표출인 것이다.

지금까지 네 개의 연속적인 배열의 양태화를 통해 <사씨남정기>의 거시 시퀀스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정념 주체의 양태 분석은 질투의 정념이 증폭되어 가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였다. 여기서 <사씨남정기>를 남편의 애정을 차지하기 위한 처첩의 총애 다툼이 아닌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제기해 볼 수 있다. 교씨는 유한림이라는 남편을 욕망하였으며, 이는 한림을 소유함으로써 얻어지는 ‘부’와 ‘권력’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결혼을 통해 주어지는 일종의 보상인 셈이다. 처첩간의 총애 다툼 곧, 쟁총형 소설이라고 분류하는 <사씨남정기>에서 사실은 애정이라는 감정보다 교씨의 질투심이 서사를 움직이게 하는 중심에 있다. 더욱이 교씨와 사씨의 직접적인 다툼은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처첩간의 관계에서 처음부터 공정한 다툼이란 일어나기 어렵다. 교씨도 삶에 대한 강한 애착심과 사씨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경쟁심이 일방적으로 사씨를 모함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삶에 대한 강한 애착심은 더 악한 거짓을 꾸며내고 더욱 부덕한 언행을 일삼으며 교씨를 흉악한 악녀로 만든다. 태생적으로 인품이 좋은 사씨가 교씨에게 아무런 잘못함이 없다하더라도 사씨의 존재 자체가 교씨에겐 위협이며 계속해서 불안감을 자극하는 매개가 된다.

2. 미시 시퀀스

(1)형성화	
(2)감성화	(a) 장치화
	(b) 정념화
	(c) 정동화
(3)도덕화	

〈미시시퀀스〉

지금까지 정념의 발현 이전부터 후행의 감정을 살펴보는 거시적인 단계에서 살펴보았다면, 이 절에서는 정념의 발현 부분만을 보다 세밀하게

포착하여 미시적인 관점으로 논의하겠다. 미시 시퀀스는 거시 시퀀스의 세 번째 단계인 ‘질투의 발작’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은 정념 도식을 따른다.

1) 형성화

먼저 형성화 단계는 하나의 주체가 감각의 동요를 겪으면서 긴장 주체로 깨어나는 단계를 말한다.¹⁶⁾ 여기서는 주체의 행위가 있기 전의 상황에서 어떠한 긴장이나 감이 포착된다. 여기서는 교씨가 질투하는 주체로 거듭나도록 고유 자질을 형성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이때 환경적 요인이 주체의 정념을 불러 오기도 하지만 이미 주체의 내부적인 감각 속에서 정념 표출에 유리한 기질을 형성하기도 한다.¹⁷⁾ 사씨와 교씨는 계급의식이 분명한 당대의 사회에서 태생적으로 주어진 신분의 차이만큼이나 그들의 품행과 덕성의 기질적인 수준의 차이는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가령, 교씨와 사씨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이 둘의 대응 방식이 상이했던 것은 두 부인의 타고난 기질이 달라서이다.

사씨도 교씨 만큼이나 집에서 쫓겨난 이후 곤궁한 상황에 거듭 처했었지만, 남편에 대한 신뢰가 깨지기는커녕 원망하는 마음조차 표출하지 않았다. 오직 자신에게 닥친 상황의 변화를 자신의 부덕함으로 받아들이고 지조를 지킨다. 반면 자신의 안위만을 고집하는 교씨는 상황에 따라 누구든지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과 교우를 맺으며 도덕적으로 문란한 행실을 마다하지 않는다. 정념의 형성화 단계에서 갈등의 원인을 밝히자면, 교씨의 내부적인 감각과 성향에서도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다음의 예문은 교씨에 대한 주변인물의 평가이다. 교씨의 내부적인 감각 상태가 분노와 질투에 유리한 조건을 전제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6) 알지르다스 J.그레마스, 자크 퐁타뉴, 『정념의 기호학』, 유기환·최용호·신정아 역, 강, 2014, 29쪽.

17) 홍정표, 앞의 책, 160쪽. 참조

(가) 부인의 구하시는 바는 식을 취치 아니하시고 유순한 부덕이 있고 칭산하여 스속을 잇고져 하시는 이는 용모조식이 빼혀느니 져어컨디 부인이 불합하실가 하나이다

(나) 두부인이 사시드려 왈 맛당이 질순흔 것슬 어들 것시여늘 절식가인을 어더 그 성품이 어질기 쉽지 못하니 유닉지 아닐가 호노라 호고 말숴하다가 이튼날 서로 써늘식 두부인이 직삼 부탁하여 부덕 조심하라 하더라

(다) 교시 총명 교힐하여 한님의 뜻을 잘 맞치며 부인 섬기기를 극진이 하니 가장상히 아니 칭찬하 리 업더라

(가)에서 매파는 교씨의 용모가 빼어남을 이유로 사씨가 맘에 들어 하지 않을 것을 염려한다. 또 절세가인을 얻어 후일을 조심하라고 경계하는 두 부인의 말에서도(나) 사씨가 앞으로 겪게 될 불운한 예감을 짐작하게 한다. 이 같이 매파와 두 부인의 발화에서 절세가인(絶世佳人)은 곧 성품이 어질지 못한다는 인식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정작 교씨가 유씨 가문에 들어오고 나서는 서술의 시각이 달라졌다. 교씨의 ‘총명함’으로 사씨와 한림에게 ‘섬김’을 잘하였으며,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교씨를 ‘칭찬’하였다.(다) 여기서 교씨의 성품과 그것이 행위로 드러난 것 사이에 어떠한 균열을 감지할 수 있다. 이러한 긴장감의 상태가 자리잡는 것은 질투 정념의 첫 단계를 형성한다.

2) 감성화

감성화 단계는 긴장 주체의 불안이 담화로 소환되며, ‘장치화’, ‘정념화’, ‘정동화’의 단계가 이에 속한다. 전술했다시피, <사씨남정기>에서 교씨의 최초 불안이 나타나는 사건은 그녀가 ‘임신’을 한 일이다. 장치화 단계에서 긴장 주체인 교씨는 임신한 아이가 남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탐색의 주체가 되어 점쟁이를 불러다가 임신한 아이의 성별을

물어 길흉을 알아내기 위해 탐색을 시도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씨는 정념을 지속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역량을 습득하게 된다.

반년이 못하여 교시 잉터하니 한림과 부인이 깃거히고 교시 또 잉남치 못할가 근심하여 복즈다려 무르니 혹 이르되 남터라 하며 녀터라 하며 남즈를 나으면 불길하고 녀즈를 나으면 길허리라 하니 교시 가장 불열하여 녀녀함을 마지아니하니

위의 예문에서 ‘근심’, ‘불열’, ‘염려’라는 어휘들은 교씨의 심적 상태를 표현해 주고 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불안한 상황을 가정하여 근심함의 강도가 더욱 커지게 된다. 이러한 의심의 지속 단계는 ‘장치화’에 해당한다. 장치화 에서는 양태적 스타일이 성립되는 단계로 교씨의 양태는 다음과 같다.

개시: /의지/ 사씨와 한림이 연접임을 원치 않음

점괄: /의무/ 사씨와 한림이 연접이어서는 안됨

지속: /능력/ 사씨가 임신하여 한림과 연접일 수 있음

종결: /지식/ 사씨와 한림이 연접임을 앎

교씨는 사씨의 임신 사실을 알고 난 후 부터 쌓여왔던 그동안의 의심과 불안의 원인이 밝혀지면서 ‘정념화’ 단계에 이른다.

교녀 | 대로대한 하여 왈 내가 사씨로부러 인물이 궂지못흔중 쏘흔 직질이 궂지못하고 문치가 궂지못하고 지혜가 궂지못흔중 쏘흔 적서지분이 현슈하나 내 혼갓 아들이 잇기로 상공의 궂벽도가 스랑함을 님엇더니 이제 데으들이 이시니 이제는 ㉠린으가 이집주인이 되고 내즈식은 무용이라 ㉡데외면으로 섰되하나 중심은 그러치 아닐거시오 거번 거문고곡도의론도 뉘워셔 말흠이라 일쥔에 상공의 참소하면 므음이 즈연 변허리니 ㉢장부의 므음이 혼번 변흔즉 나의전경이 엇지 위터치 아니리오하고

유모는 사씨의 아들 인아를 한림이 특별하게도 총애한다는 말을 교씨에게 전하고, 이를 들은 교씨가 그동안 심적으로만 감지했던 불안의 요소들이 진실일 수 있다는 믿음을 확신하게 된다. 이는 기호-서사 층위에서 /지식/의 습득에 해당한다. 무정형의 실체인 주체의 정념이 무엇인지를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념화 단계는 정념의 종결상으로 답화에 표출된다. 정념 주체는 전 단계에서부터 쌓여온 의심과 불안 및 걱정거리가 분노와 폭력으로 변형되는 정념 사건을 경험한다. 교씨의 발화 내용 안에서 감지할 수 있는 정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불안: 내 아들 장주는 무용지인이 될 것임.
- ㉡ 분노: 사씨의 성품이 선하지 않음/ 사씨가 자신을 미워하고 있음.
- ㉢ 두려움: 한림의 마음이 변하여 자신의 처지가 위태로움.

이로써 한림이 자신을 내쫓을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서자(庶子)인 장주가 차별받을 것이라는 근심은 강한 분노와 두려움으로 폭발한다. 이같은 복합적인 감정의 표출 이후에는 계속해서 미움과 증오심으로 가득 찬 정념만이 교씨의 행위를 추동한다. 이어지는 악행들은 모두 이러한 정념 단계를 거치며 실현된 행위인 것이다.

교시 교언영색으로 참언을 지어너미 그 간악이 일심흔지라 …(중략)…교시 청파의 디경실식 왈, …(중략)… 교시 심이 디발흐나 감히 베풀 계괴 업서 것츠로 희색을 화려이 흐여 아희를 스랑흐는 체흐니

이제 정념 주체의 심적 고통은 신체적인 반응으로 표출하는 ‘정동화’ 단계에 이른다. ‘교언영색(巧言令色)’과 ‘대경실색(大驚失色)’은 교씨의 표정과 얼굴빛을 표현하는 말로, 시종일관 거짓으로 대하는 교씨의 심적 상태를 보여준다. 마음속의 품은 감정은 얼굴빛으로 드러나기에, 교씨는 분노와 질투심을 감추기 위해 자신의 속마음과는 반대로 ‘희색을 화려히’할 수밖에 없다.¹⁸⁾ 따라서 교씨의 화려한 얼굴빛에서 사씨와 한림에

게 대하는 곱지 않은 시선을 감지 할 수 있다.

3) 도덕화

이제 정념 주체인 교씨는 질투의 정념으로 인한 의미생성행로의 마지막 단계인 ‘도덕화’에서 윤리적인 평가를 받는다. 여기서는 그동안 사씨를 포함한 계략과 거짓의 모든 전모(全貌)가 드러나면서 진실이 밝혀지고 오해와 갈등이 완료된다.

유한림의 재물을 들고 달아난 교씨와 동청은 이후 계림에서 냉진이란 자를 우연히 만나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고 사람들을 괴롭히며 살았다. 교씨는 유씨 집에 있을 때와 같은 처사로 동청과 냉진 사이에서 음탕(淫蕩)한 행동을 일삼기를 반복한다. 냉진은 천자에게 고하여 동청을 저지에서 참수하게 하고, 이후 교씨는 냉진을 따라 동창으로 떠난다. 둘은 하룻밤 사이 도적에게 재물을 모두 약탈당하고 냉진은 왕공자의 재산을 탐하다가 결국 곤장을 맞고 죽게 된다.

교씨가 몰락하는 과정에서 사씨와 한림이 복수를 가한 것도 아니며, 나쁜 영향을 끼칠만한 그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 최초로 경험했던 질투의 정념 사건이후로 교씨의 언행이 더욱 방탕해졌으며, 정념은 계속해서 폭력과 악행을 자초하는 기제가 된다. 한림을 만나기 전부터 교씨에게 닥친 재앙은 결국 그녀 안에 있는 질투의 정념에서 불려 온 것이다.

한림과 사씨는 마지막으로 교씨의 죄목을 밝혀서 도덕적 평가를 내리고 이에 응하는 처단을 내릴 뿐이다.

18) 이래종이 번역한 『사씨남정기』는 김춘택이 한역한 원문 계통의 이본들을 찾아 교감한 후에 번역 주해한 책이다. 이 책에서는 교씨 스스로가 얼굴빛과 말을 거짓으로 꾸미고 있음을 명백하게 제시하였다. “교씨는 자신의 죄악이 극에 달하였음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오직 얼굴을 단장하고 말이나 꾸몄다. 또한 음란한 노래와 고운 곡조로 한림을 고혹(蠱惑)하려 하였다.” (『사씨남정기』, 김만중 저, 이래종 역, 태학사, 113쪽.) 아마도 한림을 고혹하기 위해서 여색을 뽐내기 위한 신체적 반응을 보였을 것이다.

상세 좌우를 명하여 교녀의 가슴을 헛치고 념통을 너라 하니 부인이 말
녀 왈 교녀 비록 죄 중하나 상공을 뵈셔스니 죽일지라도 시신을 온전케 하
소서 상세 그 어질말 감동하여 목 잘나 죽이라 하고 시신을 들의 밭여 오작
의 밥이 되게 하니라

의탁할 곳이 없는 교씨가 창기가 되어 매파를 통해 거짓 정보를 얻고
서는 다시 한림의 집으로 오게 된다. 하지만 교씨의 마음에는 참회(懺悔)
는커녕 ‘필시 백자당(白子堂)으로 들어갈 궁리’만 하고 있다. 한편, 집으
로 돌아온 한림은 과거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사씨와 재회하여 전과
같은 가정의 평화를 되찾는다. 서사의 모든 갈등이 종식 되고, 사건은 마
무리가 되었지만 교씨의 정념은 새로운 기대감과 의지에 휩싸여 아직 갈
등은 끝난 것으로 볼 수 없다. 질투의 끝은 교씨가 죽음으로써 밖에 종
결될 수 없음을 말해준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사씨남정기>에서 정념주체인 교씨의 정념 행로를 분석하면
서, 스토리 차원에서 인식할 수 없었던 ‘질투’의 형성 요인과 그 과정을
살펴보았다. 인물의 정념을 추적하며 다시 읽기는 단순한 읽기의 개념을
넘어 바르트가 말한 새로운 글쓰기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정념은 담화
에서 명시하지 않아도 감으로는 인식하고 포착할 수 있으며, 이를 의미
생성의 여정에서 논의하고 기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텍스트 읽기의 새로
운 국면을 열어 주기 때문이다. 더욱이 권선징악이라는 주제로 정형화
되어 있는 고소설을 정념 도식을 통해서 살펴 봄은 독자의 능동적인 참
여를 요구하며, 이로써 읽는 텍스트가 아닌 쓰는 텍스트가 되게 한다.

고소설의 인물 관계는 선악의 대립이 분명하여 대부분의 결말은 인과
응보 및 권선징악의 교훈을 따른다. 그러기에 조선조 사회에서 권장하는

유교 질서를 표방한다는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쟁충형 가정소설은 모두 동일한 스토리와 고정적인 주제를 갖는 것인가? 다양한 인물이 펼치는 다양한 사건과 갈등이 반드시 비슷한 결말이 되는 것은 인물의 정념이 추동하는 힘이 같은 원리로 작용함으로써 낳은 자연스런 귀결일지도 모른다. 즉, 시공을 초월하여 인물의 감정과 이에 따르는 행위의 연결은 인물마다 개성적임과 동시에 보편적인 질서를 따르기 마련이다.¹⁹⁾ 이는 데카르트가 “좋은 것을 지향하는 욕망은 좋은 것에 반대되는 나쁜 것에서 멀어지려는 경향을 지닐 때 미움, 두려움, 슬픔을 수반한다.” 고 말하는 것과 통한다.

또한 <사씨남정기>와 같이 처첩간의 분란은 비단 가정 내의 문제로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제도적인 차원에서도 신분제의 한계와 문제를 보여주기도 한다. 남성들이 본처 이외에 첩을 두는 축첩(蓄妾)제도는 삼국 시대부터 이어져 온 것이며, 이들의 갈등은 줄곧 가족의 갈등 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적인 문제까지 갈등의 근간(根幹)이 되어왔다. 이로 인한 적서차별의 갈등 문제는 신분제의 문제와 함께 또 다른 불만을 야기시켰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여, <사씨남정기>에서 다루는 문제의식은 개별적인 가정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며, 보다 보편적이며 인간 내면의 갈등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쟁충형 가정소설에 나타난 갈등 양상을 통합적으로 고찰하는데 기호학의 정념 분석이 갖는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투기하는 여성의 부덕함을 단순한 비난으로 논하기에 앞서 가치 대상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와 행위의 이유를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유교적인 질서와 목적론적인 교훈 전달의 의미에서 벗어나 정념의 기제가 자리 잡고 있는 인간 보편의 감정이라는 측면에서 논의할 때 가능한 일이다.

19) 또한 “좋은 것에 대한 추구와 좋은 것에 반대되는 나쁜 것에 대한 도피를 하나의 욕망에 연결할 때, 이 둘이 만드는 하나의 정념만이 있을 뿐이다.” 르네 데카르트, 『정념론』, 김선영 역, 문예출판사, 2004, 90쪽.

참고문헌

- 舊活字本, 『古小說全集』21, 民族文化研究會, 仁川大學, 1984.
- 謝氏南征記 京板本 巴里東洋語學校本
- 金光淳所藏 筆寫本 韓國古小說全集 11, 1994.
- 김만중, 『사씨남정기』, 이래종 옮김, 태학사, 1999.
- 박인철, 『파리학과 기호학』, 민음사, 2003.
- 홍정표, 『정념 기호학; 문학 텍스트에 나타난 희로애락』, HUEBOOKS, 2014.
- 르네 데카르트, 『정념론』, 김선영 역, 문예출판사, 2004.
- 알지르다스 J. 그레마스, 자크 폰타뉴, 『정념의 기호학』, 유기환, 최용호, 신정아 옮김, 강, 2014.
- 제랄드 프랭스, 「서사학이란 무엇인가」, 최상규 역, 예림기획, 1999.
- 김수연, 「동아시아 서사전통과 세정소설(世情小說): 『금병매』·『사씨남정기』를 중심으로」, 『한국어문학연구』 59집,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12.
- 홍정표, 「정념의 독점성과 미시체계 연구」, 『프랑스학연구』 25집, 프랑스학회, 2003.
- _____, 「정념의 기호학적 연구」, 『프랑스학연구』 15집, 프랑스학연구, 1997.
- _____, 「불문학: 주체의 존재태 연구-정념의 기호학을 중심으로」, 『불어불문학연구』 50집, 한국불어불문학회, 2002.
- _____, 「‘질투’에 관해서: 정념의 기호학」, 『불어불문학연구』 39집, 한국불어불문학회, 1999.
- _____, 「쟁점들: 김동인의 단편 소설 『배따라기』에 나타난 정념의 기호학적 분석」, 『기호학연구』 제20집, 한국기호학회, 2006.
- 박은영, 「정념의 기호학 연구-보들레르의 『악의 꽃』에서 주체의 행로」, 『프랑스 문화예술연구』 5집, 2001.
- Algirdas Julien Greimas & Jacques Fontanille(1993), *The Semiotics of Passions From States of Affairs to States of Feeling*, (trans.) Paul Perron & Frank Collin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A Study on passion of Domestic Novels with a Struggle for Love Type – ‘jealousy’ in *Sassinamjeonggi*

Kang, Ji-Youn

This study is focusing on the passion which drives the characters' behaviors in <*Sassinamjunggi*>, written by Man-joong Kim in the late 17 century. Also, the study analyzes the condition that realizes passion and the formation process of it, basing on Ms.Kyo, who comes into conflict within the story. In order to analyze this, with the scheme of passions, the study makes use of the analysis on semiotics of passions. The characters' behavior is based on the passion located on the level of epistemology, thus constructing conversations through these passional transformations. Consequently, paying attention to the characters' passions shall contribute to thoroughly understanding conflicts by passion's relating with a certain behavior.

Ms.Kyo's jealousy in <*Sassinamjunggi*> is close to some compensation acquired by a marriage institution. According to this, although the start of her jealousy is derived from the desire to live happily, she eventually causes her family to breakdown, c by passion, thus suspecting, bearing negative nervousness, and these feelings being transformed to violence and rage. On the surface of the story, it shows the very subject of Korean ancient novels by following the principle of punitive justice completely. However, when looking back on her behaviors based on passions, it can be said that she is seeking a kind of life to secure her and her children's safety. Therefore, Ms.Kyo is reborn as a subject who feels jealousy between competition with the first original wife to defeat her and attachment on the life itself.

Key words : passional transformations, Jealousy, Semiotics of passions, *Sassinamjeonggi*, passion, struggle for love.

투고일 : 2015. 11. 15. / 심사일 : 2015. 11. 30. / 심사완료일 : 2015. 12. 05.